

KREI리porter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

충북지역 리porter

기록자: 박종임

일시	2016년 12월 5일 월요일	장소	소이야기(충북 청주)
참석자	총 10명 - 리porter 회원: 강문근, 김주식, 박종임, 서동구, 윤정임, 이종범, 정일영, 정화려, 조성문 - 연구원: 김동원 조사고객팀장		

1. 주요 일정

시간	일정	비고
12:00~13:00	점심식사	소이야기
13:00~17:00	간담회	

2. 회의 내용

□ 충북지역 농업 이슈 및 현장여론

- 이종범 - 농촌이 잘 살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씀에 공감한다. FTA피해지원 직불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.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피해 직불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.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매출이 30% 줄었다. 최순실 사건으로 또 20% 줄었다.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. FTA 피해 대기업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순수농민들만 피해가 크다.
- 김주식 - 김영란법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는다. 선진국에서는 직접지불제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. 농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공감을 못 한다. 친환경 농사를 했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.
- 정화려 -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2008년도에 27조였는데, FTA,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피해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. 독일은 직불제가 70~80%다. 짐승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. 밭농사 8,000평을 했는데 매출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.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하는 것은 1억이 넘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. 도시민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비율이 60%에서 40%로 떨어졌다. 대기업에 이용당하지 말고 직접 지원받았으면 좋겠다.
- 김동원 실장님 - 농진청은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다원적 가치까지 생각한다. 비 농업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인정치 않고 농업가치를 축소하려고 한다. 스위스는 경관을 보존하고 경관보존직불제를 지

불한다. 경관을 보존하면 관광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직불제를 지급한다.

- 정일영 - 친환경을 해도 판로가 없다. 임야를 매매하면 세금이 비싸다. 산짐승 피해문제 대책을 세워야한다.
- 윤정임 - 벼 수매를 하는데 단위농협 45,000원이었는데 올해 35,000원으로 떨어졌다.
- 강문근 -전통 주 공장을 했었는데 공장 문을 닫고 올해는 절임배추를 했다.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.

□ 기타 논의: 충북지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음.

3. 이모저모

